

농민과 함께한 30년을 돌아보며 ('95대산농촌문화상수상기록)

김 의 부

통영시 농촌지도소

저는 통영시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김의부입니다.

우리 나라 7천여 농촌지도공무원이 모두 제 나름대로의 노력과 소신을 가지고 농가포장에서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나라 제2의 섬 거제도에서 해방 전 해에 6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6·25가 발발하고 다음 해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이 17만을 수용하는 63포로수용소 설치와 20만이 넘는 피난민이 밀려오고(그때 거제인구 10만 내외) 해서 47만을 넘는 인구나 군용차가 많아 겨우 9살 때 국민학교를 입학하였으나 다음 해에 현 신현읍이 소개지구로 지정되어 부모님을 따라 3개곳을 옮겨 다니다 고향에 돌아와 국교를 졸업하게 되었으나 농토가 포로수용소 설치를 완전 폐허라 곡괭이 하나로 복구하다 보니 본래의 모습을 찾기로 1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쪽은 바닥이 나고 보리쌀 씻은 물을 앉혀서 개떡을 만들어 먹는 가난이라는 명을 쓰고 얼굴에 죽은개 투성이로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배고픔을 벗어보고자 '65년 거제시 농촌지도소에 들어온 동기가 되었습니다.

I. 미맥중심 지도

제가 농촌지도사업을 시작할 때는 배고픔을 없애는 길은 주곡자급이라고 농민, 관, 지도소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몇십리길도 마다 않고 걸어다니면서 야간교육(마장교회 농민학교 개설운영), 현지연시지도, 사랑방 좌담회 등과 마

을방송답을 이용 농민지도를 했지만 그때의 농민수준을 표현하면 석회와 염화가리는 알은 개울에 버리고 포대는 장판으로 이용하던 벼농사 기술을 삼요소균형시비 생력화를 위한 기계화, 어린 묘, 직파재배등 세계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다수성품종 보급으로 주곡달성을 이룩한 녹색혁명은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며 우리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업적이며 저의 조그마한 보탬이 아닐까요?

이 혁명의 이면에는 셀마해풍이 불어 벼가 백수가 될 때는 안타까워서 정부관계요로에 신속한 보고로 재해 보상비가 통영군에 32억원이 나오기도 하고, 한밭과 충수에는 농촌지도사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나 되는지 특하면 비상근무발령은 있어도 해제 없는 긴장 속에 살고 벼멸구가 들어 피를 말릴 때는 이놈의 벼멸구 정력에 좋다는 연구결과는 왜 안나오는지 푸념도 하고 신품종 고구마를 밀양저장고에서 봄에 공급하여 썩힌 일, 미맥중심 농사를 바꾸어 보려고 보급한 약초가 실패하여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쳐 가슴아팠던 일. 두산8호 맥주맥종자를 몰래 도입하여 맥주맥 황금기를 맞고 전남 진도에 맥주맥시대를 연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었으며, 이 모두가 농촌이 풍요로워 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열심히들 뛰고 뛰고 뛰었지요. 그러나, 농업 여건이 교육수준의 향상, 국민의 식의 향상, 국민경제의 향상, 교통정보의 편리화와 함께 농업 위상의 하락 등으로 농촌의 젊은이가 계속 도시로 도시로 이동하는 농촌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이젠 부녀화와 노령화로 변하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 현실은 미맥중심 단순구조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복잡한 영농형태로 70년대 후반기에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II. 원예작물지도

소비자의 기호가 원예작물 중심으로 급속한 전환기를 맞아 '79년과 81년에 산양면 0.1ha의 비닐하우스 보급을 시작하여 현재 50여 농가에서 21ha 재배로 8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82년 광도면에 봄감자 최아멸칭재배 0.3ha를 보급하고 이 지역에서는 논 마늘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고정관념이 있어 독농가 10명을 원예연구소 남해출장소 고상훈소장님과 현지 농가 포장을 둘러보고 농민교육을 통한 마늘은 바위 위에라도 석회와 잘 섞은 퇴비만 제대로 주면 된다는 교육과 설득으로 농민들에게 동기유발을 하기까지 옛말에 말 고삐를 잡고 냇가까지는 가지만 물은 못 먹인다는 말을 느끼면서 5농가를 선정 사업을 실시한 결과 분뇨처리장의 찌꺼기만 사용한 1농가만 실패하고 4농가가 성공하여 평당 15,000원의 소득을 올려 당시 땅값의 1.5배로 농민들의 반응이 좋아 0.5ha로 시작하는 마늘이 285ha로 농가소득 64억원을 올리는 지역 특산물이 되었으며 광도면 수직마을 추길호 씨를 중심으로 부락을 부자마을로 만들어 준 공로의 공덕비를 세워 주겠다는 말을 해 올 때 이것을 사양하느라 진땀을 뺀 일이며 몇십리길을 마다 않고 마늘 몇 접을 이고 집까지와 선물을 줄 때 모든 어려웠던 일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고구마(이곳에서는 옥지고매)는 584ha(밭면적의 17% 차지)에서 14만톤의 고구마를 생산하지만 그 부산물인 줄기와 순은 극히 일부 자가채소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팔려서 가축사료로 쓰이는 정도(엔시레지 제조법을 보급하였으나 확대되지 못함)에 불과한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83년 공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을 보고 도산면에 신선한 고구마순 생산을 위해 신미품종 1ha를 재배케 하여 시장개척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물이 중간상인의 농가에 따라 가격이 좌우됨을 알고 농협 출하반

운영을 하여 가격 안정을 기해 현재 223ha에서 연간 18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전국 최고 명산지로서 기반을 잡았으며 현재는 비닐하우스 재배도 23ha로 확대 조기 출하하는 뿌리는 식용, 순은 채소로 줄기는 사료로 이용되는 버릴 것 없는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비닐을 이용한 채소의 주년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도시민의 풍족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이젠 온 나라가 백색혁명을 달성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옛 임금님 수랏상보다도 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한 것은 우리 조직의 저력으로 평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혁명을 짧은 기간동안 두 번이나 달성한 공로는 어디 가고 푸대접하면서 군사혁명은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추한 말싸움질을 하는 의식구조는 언제 바뀌어 정당한 평가를 받을지……

III. 지역특화과수 육성

통영시가 온화한 해양성기후로 난지과수의 북한계 지역으로 유자는 예로부터 대밭이나 집 뜰에 몇그루 심어져 왔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정상적인 수확을 하지 못하는 딱한 실정을 알고 '81년 원예시험장에 6개월의 장기반 교육을 이수하면서 부터 '89년까지 수집한 자료로 유자 재배기술이란 국내 최초의 서적을 발간 1,000여권을 무상 배부하고 '95년에 개정증보판을 내어 유자를 연구하는 연구기관, 지도기관, 교육계, 독농가 등에서 기술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독자들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87년부터 우수농장을 시범육성하여 '91년 고 김익환 씨는 농협 자랑스런 농민장려상, '93년 김정립씨는 창의부문 동상을 수상하고 전국적인 유자 시범농장으로서 견학 코스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초봄에 유자껍질이 터져 폐원이 되는 원인이 수지병임을 밝히고, 제초제의 과다사용에 의한 마늘잎 현상, 유자의 부스럼모양 피해가 톱다리 노린제 피해, 시판 부숙퇴비의 캐스장해도 밝혀 과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자의 등록 품종이 남해

1호 단일품종임을 안타깝게 여겨 좋은 품종선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찾던 중 '88년 새로운 변이종을 발견하여 원예연구소 남해출장소 박동만 소장에게 분석 의뢰하여 당연구소 실적으로 곱질의 무게가 50%를 넘어서고 대형과일이며 반왜성인 신품종으로 '94년 "남출"로 명명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발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쓸쓸한 뒷맛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품종을 등록하였다는 큰 자부심도 가지며 아울러 우리 시에 300ha에서 4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미과수가 성과수로 되면 100억원이 넘을 지역중심과수가 되었다. 또 우리 시에 한 자락을 차지하는 참다래는 '81년 토우농산에서 뉴질랜드 헤이워드품종을 주당 6,000원에 공급하므로 가격이 비싸 면적확대에 애로가 있어 삼목생산을 지도하므로써 토우농산측에서 잡목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깨고 묘목 값을 반이하로 낮추고 '88년 도천동 밀감재배 폐하우수를 이용 "향록" 품종을 0.5ha 조성 단일품종으로 우리 나라 제일 큰 농장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생력화를 위한 모노레일 점적관수시설, 저장고설치 정지전정등이 잘된 우수농장이 되었으며 광도면 황리 감경립씨 농장 2ha를 조성케 하여 방풍림과 방풍망, 자동무인방제시설, 코딩코일이용 덕설치로 녹물과 방지, 인공수분기 자체제작 염가공급, 과일비대축진제 후리메트사용등 과일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의한 경영개선을 시키고 참다래 영농조합을 통한 비가림재배를 16농가에 실시케 하는 한편 '94년에는 체계적인 기술서적인 참다래재배를 발간 500권 무료 배부 농민들의 기술촉진을 과속화 하였습니다. 그 외 '92년 매실재배(오성출판사), '95년 무화과. 비파재배기술(김용근씨와 공저)등의 기술서적을 발간 각 1,000권씩 무료제공하였으며 이 서적이 재배 농민들의 길잡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IV. 청소년육성

'81~'83 면단위 4-H후원회(광도면, 도산면) 2

개소 조직 140만원 기금확보 및 '87~'94년 총무시 4-H후원기금 1억원조성, '87~'92년 사회단체 총무청실회와 4-H후원회, 독지가를 통한 장학금 600만원 지원 특히 독지가와 연결 특별장기장학생 2명을 선정, 중학에서 대학(항공대 1, 서강대1)까지 지원토록 하였으며 불우 4-H회원 지속적인 지원, 취업알선 25명 '87년 우포4-H 독서실지원 책걸상 30조, 도서 300권 지원, '87~'89년 365명, 4-H회원 현대정형외과, 최내과, 통영적십자병원 등과 협약, 의료비 30% 할인제 실시('90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전까지 운영)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84년 사회단체 총무청실회와 총무시 4-H와의 자매결연을 맺게 하여 4-H회원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88년 대회 때는 최일홍 경남도지사가 참석하여 격려해 주셨으며, 사회변혁에 따른 회원들의 정신교육을 위해 생활예절 1,000부 발간 무료 배부하고 '89년부터 시간·약속예절·질서지킴이등 40여회에 2,100여명의 도덕재교육을 실시하고 '90년 향토역사알기 순회행군대회 개최 회원 258명이 12km을 도보행군하면서 통영의 역사, 글짓기, 그림 그리기 등의 행사로 애항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특수 4-H조직 삼천포 12차농약, 통영 오광대 전수를 실시하고 사무실 반지하에 30평의 놀이공간과 함께 독서실로 운영케 하여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V. 생활개선지도

'79년 산양면 곤리 봉전에 상설탁아소를 설치하고 보건지소장과 협의, 월 2회 질병 무료검진과 치료실시, 장난감, 도서 등을 수집 지원 6년간 계속하였으며, 그 공로로 곤리 보모 임혜자 양은 '87년 "낙도에 피는 꽃"이란 제목으로 경남일보주최 새마을 봉사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87년 인평동, 평림동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0호를 실시 호당 50만원지원 수세식화장실, 온수샤워기, 목욕탕을 개량하므로써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 이 환경개선사업이 내무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의 현지 합동조사에 의해 '9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도시주부 여가선용을 위한 텃밭 가꾸기를 '92~'94년 본인 소유 10ha의 밭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농심 부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가정미화를 위해 장미 300본, 동백 1,000본과 초화류 다수를 지원하고 특히 통영쓰레기장에 동백과 초화류를 지원 주위환경을 깨끗이하여 쓰레기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혐오감정을 밝은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VI.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지도자 3개읍·면 연합회 조직('79산양읍·'81광도면·'83도산면)을 완료하고 4개소의 시범농장(유자·참다래·수경재배·신선채소) 운영과 선진지 견학을 '87~'92년 6회에 걸쳐 250명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 총무연합회 3,000만원의 기금조성으로 자립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VII. 시민정신함양 및 서비스사업 실시

식물병원을 개설하여 농업전문 서비스를 시작 고급문화 식물의 올바른 가정관리기법을 지도하고 발육상의 여러 가지 이상증세를 진단처방함과 동시 입원치료가 가능토록 하여 취미생활을 안심하고 활발히 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 아울러 도시민들이 농촌지도소를 이해하는데 일익을 더했고, 자연학습원 조성으로 유년기 아동들의 자연관찰과 농심개발에 기여하고 산지과수 포장 조성, 약초전시포, 국화품종전시포, 소품분재원 조성, 식물원 조성등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자연미 생활을 통해 삶의 여유를 되살리는 시민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지역 고유의 초물이 지닌 자태를 감상하므로써 향토사랑의 정서를 더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VIII. 일반 사회분야 활동

'76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총무학생회를 조직(거제, 장승포, 고성 포함)초대회장으로 활동하고(현, 거제학습관 독립, 고성분리) '86년 동재학 학생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200만원을 조성하여 제일교회 지하 30평에 학습관 대여 활용, '87년 지역국회의원 정순덕의원을 중심으로 후원회를 조직 '87~'88년 지역동창회장으로 학회 지원 40만원 동창회보 1,000부 발간, '87년 하청중, 거제종교, 통영지역 동창회장을 현재까지 역임하고 '93년 거제, 통영, 고성지역 발전연구회(석사이상 15명으로 구성) 조직 '94년 동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87~'91년까지 이 총무공환산대첩 기념제전행사 웅변대회 개최 '69~'70년 월남중군, '90년 4H육성지도자 중화민국 해외연구, '92년 호주시드니주립대학 행정연수 등을 실시하여 자기발전의 기회와 농촌지도소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힘썼습니다.

농민과 함께 한 3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농업이 최 밑바닥에 왔으나 그래도 농업은 기간산업으로 식량의 안정공급과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영원히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농민도, 농촌지도사도 변해야 할 큰 전환기에서 우리 통영지역을 세계 최첨단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으로 만들기 위해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지도사로 세계화, 정비화시대를 맞아 외국어와 컴퓨터도 열심히 배워 수출길을 열고 국제정보도 신속히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건전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으며 남도 나와 같이, 속도 걸과 같이, 끝도 처음과 같이란 가훈속에서 온 가족이 남에게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도 밝은 전원으로 삶의 질이 풍부한 희망의 꽃이 피리라 생각하면서 끝으로 '95 대산농촌문화상 대상자로 추천해 주신 한국농촌지도학회 최민호 회장님, 통영시 농촌지도소장 김재호 박사님과 여러 직원님, 이 후미진 곳까지 현지답사하여 선정해 주신 대산문화재단

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오며 아울러 저를 믿고 같이 동반하는 내자에게 미안한 생각과 함께 시상금 1,000만원을 통영농업개발기금으로 기탁함에 동의해 주어 이 자리를 빌려 난생처음 운

자씨 “고마워”, “사랑해” 하며 뽀뽀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산농촌문화상에 제이, 제삼의 농촌지도공무원이 선정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끝맺음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